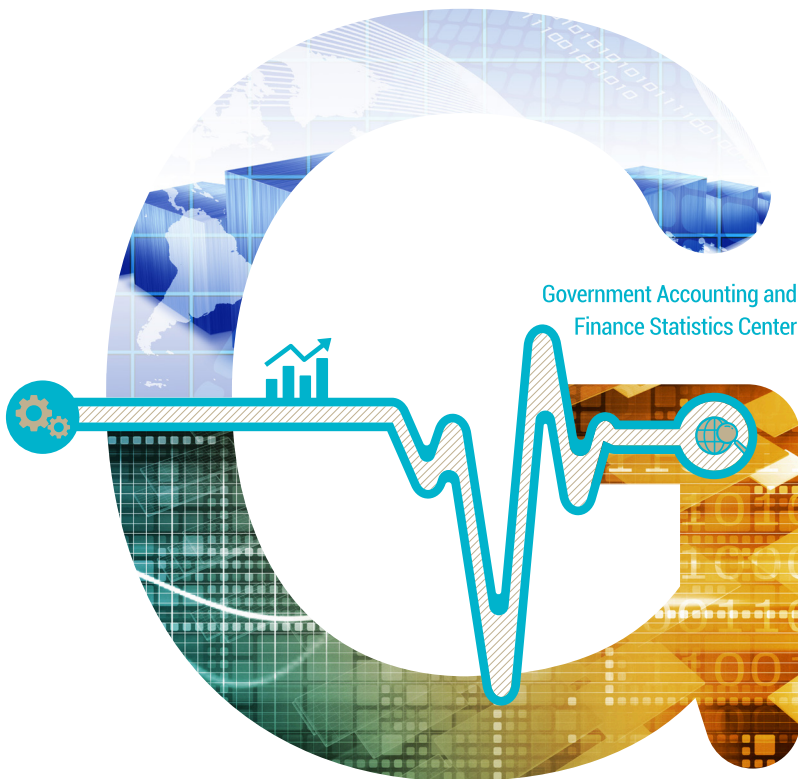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2년 여름호
Vol. 31



국가회계 동향

제30차 국가회계제도심의회위원회 개최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1 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재정통계 동향

2021 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센터동향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1차 월례회의

CONTENTS

2022년 여름호

Vol. 31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국가회계 동향

- 04 제30차 국가회계제도심의회 개최
- 07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12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15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VOL. 31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여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2년 6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재정통계 동향

- 20 2021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2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25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33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34 2021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센터 동향

- 46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1차 월례회의
- 49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최종보고회
- 50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사업운영
- 52 해외위탁연구 진행: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세미나

- 54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결과보고



공지사항

- 63 뉴스레터 구독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제3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01 제3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4월 27일 소위원회를 거쳐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면결의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투자일임계약자산 특례」 등 세부 회계처리 특례 일부 개정(안)과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사항은 향후 관계부처 의견 조화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22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및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및 논의 결과

구분	안건	논의 결과
의결안건 제1호 「투자일임계약자산 특례」 등 세부 회계처리 특례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기금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특례 삭제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 제외 특례 2023회계연도부터 삭제 	원안대로 의결
의결안건 제2호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자산·부채 이관 없는 중앙관서 신설 보완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순자산 안분비율 산정 문구 명확화 • (일반유형자산 등 회계처리) 임차개량자산 정의 신설 	원안대로 의결

이번 제30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장 안도걸(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위원 강완구(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민간위원 김봉환(서울대), 김선미(전남대), 김완희(가천대), 박개성(가림회계법인), 박경진(명지대), 송승아(서울여대), 유승원(경철대), 이아영(강원대), 임근구(삼정회계법인), 정도진(중앙대) 총 12명(민간위원은 가나다순)이며, 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가. (의결안건 제1호) 「투자일임계약자산 특례」 등 세부 회계처리 특례 일부 개정(안)

첫째, 2020년부터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에 신설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특례를 폐지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에게 자산운용에 대한 개별 투자행위 시마다 직접적인 운용지시를 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도록 하는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20년 제2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모든 국가회계실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자일임계약자산 회계처리를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특례를 삭제하였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회계처리지침」 실무해설10에 따르면,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목적, 위험선호정도, 투자예정기간, 투자대상별 투자한도 등의 위탁투자지침을 운영사에 제공하여 투자자의 운용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은 특정투자일임계약은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한다.

둘째, 2021년 5월 감사원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정책감사를 통한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설정유예 특례를 폐지하였다. 2011년부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채권발행 한도 감소 및 신용등급 하락 우려 등의 사유로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의 설정을 유예하는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재 채권발행 잔액 대비 순자산비율(운용배수)이 낮게 유지되어 채권발행 한도 감소 우려가 없고 신용도 하락 위험도 낮아 해당 특례를 2022회계연도까지만 적용한 후 2023회계연도부터 삭제하기로 하였다.

나. (의결안건 제2호)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

첫째, 정부조직개편 시 ‘중앙관서가 신설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중앙관서가 신설되어 자산·부채를 이관받는 경우’에는 정부조직 개편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는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경우 ‘중앙관서의 명칭은 변경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앙관서가 신설되었으나 자산·부채 이관이 없는 경우’에 전체 기간이 아닌 신설 시점부터 회계처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이관 및 승계되는 기본순자산 산정 시 안분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안분비율 계산 시 분자의 이관대상 순자산과 분모의 순자산 총액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정 안분비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안분비율 계산 시 이관대상 순자산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은 ‘이관되는 자산·부채의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조정’이며, 순자산 총액에서 차감해야 할 대상은 ‘자산·부채를 이관하는 국가회계실체의 자산·부채 평가로 발생한 적립금및잉여금, 순자산 조정 총액’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임차개량자산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다. ‘임차개량자산은 임차자산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하는 비용(임차인의 부담분에 한한다) 중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부분’을 말한다.

02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를 각각 5월 4일과 6월 28일에 개최하였다. 국가회계 프로젝트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국가회계 프로젝트의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3월 자문단의 2022년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국가회계 프로젝트 추진 과제로 '현금흐름표 신설'과 '연금 회계처리 개선'을 선정하였다. '현금흐름표 신설' 과제는 국가 재정활동의 모습을 현금흐름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결산보고서에 현금흐름표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 회계처리 개선'은 사회보장급여 및 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 등 국제적인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국가회계처리지침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과제이다.

서울역 4층 KTX1 회의실에서 열린 자문단 제1차 회의에서는 현금흐름표 신설 과제와 연금 회계처리 개선 과제가 함께 논의되었으며, 추진 과제별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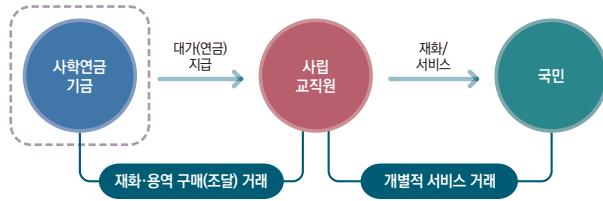
추진 과제	논의사항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현금 흐름표 신설 영업·투자·재무활동 공시 범위 • 주요 5개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현금흐름표 공시 사례 분석 및 IPSAS, GFS 등 주요 기준상 공시 규정 검토 • 영업활동(11개), 투자활동(10개) 및 재무활동(6개)의 공시 수준 적정성 • 국공채 발행 및 취득 관련 내부거래 제거 적정성 여부
	연금 회계 처리 개선 사회보장급여의 정의 개발 및 적용대상 사회보장제도의 범위 • (회계기준 현황) 현행 연금·보험지침은 별도 근거 없이 4개 연금·보험 기금에 한정하여 적용되나, IPSAS 42, Social Benefits는 사회보장급여의 정의를 중심으로 적용대상 사회보장제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함 • (문제점) 사회보장급여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급여의 정의가 없어 적용대상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의 회계처리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 (개선안 ①) IPSAS 42의 사회보장급여 정의를 바탕으로 적용대상 사회보장제도 범위 설정 • (개선안 ②) 사회보장급여를 현행 법령 근거로 정의하되, 적용대상 사회보장제도 범위는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보고대상으로 설정 • (개선안 ③) 별도의 사회보장급여 정의 개발 없이 현행과 같이 사회보장성기금만을 적용대상으로 제한

서울지방조달청 소회의실 1007호에서 열린 자문단 제2차 회의에서는 연금 회계처리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제1차 회의에 이어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급여 분류 논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추진 과제	논의사항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연금 회계 처리 개선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급여 분류의 적정성 논의 • (배경) 제1차 자문단 회의에서 사학연금이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이 있었으나, 관련 IPSAS 문헌의 추가 검토를 통해 사학연금의 사회보장급여 분류 논거를 보충할 필요가 있음 • (IPSAS의 분류기준) IPSAS 42 등은 사회보장급여와 유사한 성격의 거래를 4개 유형(사회보장급여, 집합적 서비스, 개별적 서비스, 종업원 급여)으로 분류 • (사학연금의 거래 구조)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거래 구조</th> <th>성격</th> </tr> </thead> <tbody> <tr> <td>사학연금 지급 거래 (거래 ①)</td> <td>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방식으로 현금을 제공</td> <td>거래 ②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함</td> </tr> <tr> <td>교육서비스 제공 거래 (거래 ②)</td> <td>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td> <td>교육서비스는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이므로 '개별적 서비스'에 해당함</td> </tr> </tbody> </table>		거래 구조	성격	사학연금 지급 거래 (거래 ①)	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방식으로 현금을 제공	거래 ②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함	교육서비스 제공 거래 (거래 ②)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
	거래 구조	성격							
사학연금 지급 거래 (거래 ①)	정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연금방식으로 현금을 제공	거래 ②의 개별적 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함							
교육서비스 제공 거래 (거래 ②)	사립학교 교직원이 국민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	교육서비스는 일정 연령 이상 모든 국민에게 개인별로 제공되는 재화·서비스이므로 '개별적 서비스'에 해당함							

2022년
국가회계
프로젝트

연금
회계
처리
개선



- (사학연금의 분류) 사학연금은 직역연금으로 사학직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며 사학교직원은 정부와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사회보장급여 또는 종업원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가 국민에게 교육서비스(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교육서비스를 구매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

센터는 금년 중 현금흐름표 및 연금 회계처리 과제에 관한 쟁점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향후 추가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01 2021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국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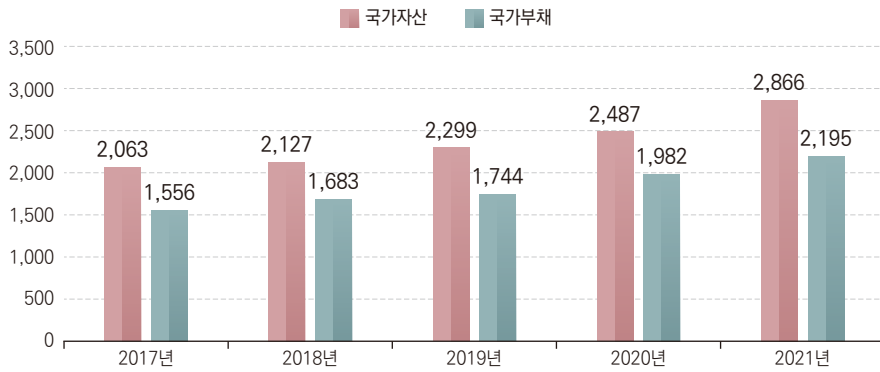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수정 반영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국가결산보고서를 같은 달 10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결산검사 수행결과를 5월 20일에 기획재정부에 송부하였다.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국가자산은 26.2조원 증가, 부채는 1.1조원이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 말 현재 국가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 부채는 2,195.3조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70.8조원으로 집계되었다. 기금 여유자금 증가 등으로 자산이 전년 대비 379.0조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 잔액 증가와 할인율 하락 등에 기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213.6조원 증가하였다.

그림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7~2021 각 연도

2021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2,866.1조원으로 전년 대비 379.0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투자자산 152.6조원, 일반유형자산 99.9조원, 사회기반시설 62.3조원, 유동자산 61.9조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7%와 24.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유동자산 19.7% 순이다.

그림2 국가자산의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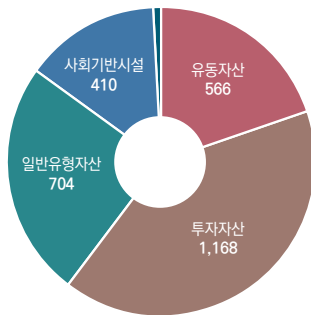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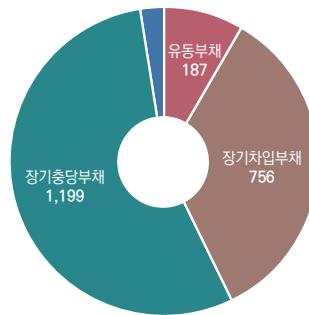


그림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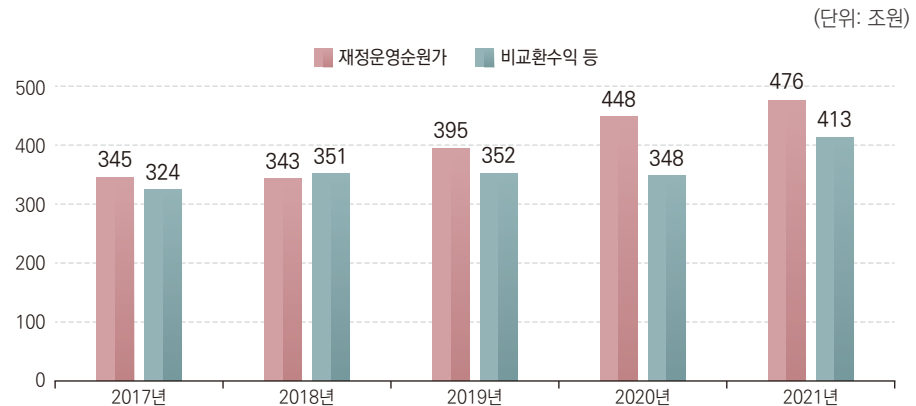
2021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27.5조원, 단기금융상품 64.6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59.0조원 등 총 565.9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809.8조원, 장기대여금 178.3조원 등 총 1,167.9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7.6조원, 건물 66.4조원 등 총 704.0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05.1조원, 철도 54.5조원 등 총 410.2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4조원 등 총 2.6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장기미수채권 7.8조원 등 총 15.5조원이다.

2021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195.3조원으로 전년 대비 213.6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장기차입부채 97.6조원, 장기충당부채 96.8조원, 유동부채 19.5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 말 현재 부채 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4.6%, 장기차입부채는 34.4%, 유동부채는 8.5%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6.3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63.3조원 등 총 187.4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737.6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5.6조원 등 총 756.1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199.4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138.2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2.1조원, 기타 9.1조원(보충충당부채 5.5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2.4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40.4조원, 장기미지급금 12.0조원이다.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의 재정운영순원가는 476.1조원이며, 비교환수익 등 412.7조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63.4조원이다. 이는 재정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을 나타낸다. 재정 운영순원가는 전년 대비 28.0조원이 증가하였고, 비교환수익 등은 국세수익의 증가 등으로 65.2조원이 증가하여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도 100.6조원에서 63.4조원으로 전년 대비 37.2조원 감소하였다.

그림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출처: 기획재정부, 「2017~2021회계연도 결산보고서」, 2017~2021 각 연도

이번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02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7~9월)



「2022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 22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는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전국 7개 주요 도시(서울(2회), 광주, 대전, 제주, 부산, 대구, 세종(2회))에서 9회차의 과정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각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 운영하여 더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장소와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의 총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법 등의 과목을 통해 회계 담당 공무원이 회계 관련 업무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재무결산 담당자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결산업무 진행 순서대로 세부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급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 1 교육 커리큘럼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이론	1일차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5.0	1. 일반회계의 원리 2. 재무제표의 구성 3. 회계의 순환과정
		[실습] 재무제표 만들기		1.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손익계산서 만들기 2. 재무상태표(발생주의) 만들기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	1.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이해 2. 국가회계의 의의와 구분 3. 국가회계법령의 개요 4.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와 주요 내용 5.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6.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기본사례
	2일차	[실습] 국가재무정보 기초사례 연습	1.0	1. 국가재무정보 이해를 위한 기초사례 2. 사례를 기초로 한 국가의 예산, 추경, 재정, 프로그램, 회계와의 관계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1.5	1. 세입세출거래의 복식부기 변환 2. 발생원인에 따른 세입세출거래의 3가지 유형 3. 세입세출과목과 재무계정과목의 연계
		결산조정과 발생주의	1.5	1. 결산조정: 발생주의 재무정보로의 전환 2. 자산·부채평가 3. 기간손익 조정 4. 비현금거래 5. 원가의 재분류
		[실습] 종합사례 연습	3.0	1. 종합사례의 기본 가정 2.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현금흐름과 회계기록 3. 현금주의에 따른 복식부기 기록방식 및 회계처리 4. (현금주의) 수정전시산표와 재무제표 5. 발생주의 항목의 이해 및 회계처리 6. (발생주의) 수정후시산표와 재무제표

표 1 의 계속

과정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국가 회계 실무	1일차	업무유형별 dBrain 오류사례 및 해결방안	5.0	1. 유형별 dBrain 업무 처리 유의사항 - 수입·지출 관련 유의사항(1, 2, 4~8, 10차 교육) - 국유재산, 물품 관련 유의사항(3, 9차 교육)
		재무제표를 통해 국가재정 들여다보기	2.0	1.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하는 이유 2. 재정운영표 살펴보기 3. 재정상태표 살펴보기 4. 주석 등 기타 정보 살펴보기
재무 결산 실무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국가회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 관련 법령 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4.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1.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국가회계편람 수정사항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및 마감
	감사원 지적사례	2.5	1. 감사원 지적사례	
	내부거래실무	1.5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방식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2일차	결산조정분개	2.0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결산보고서 작성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국가 회계의 활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6. 종합사례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표 2 교육 개요

교육 기간	2022년 6~10월(총 13회차)
교육 지역 및 방식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9회차)으로 진행하고, 각 과정당 1개 차수(4회차)는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으로 병행 실시
대상자	국가회계 관련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인원	각 회차당 약 80~120명
교육 과정	국가회계이론 과정(2일간, 10회) 국가회계실무 과정(1일간, 10회) 재무결산실무 과정(2일간, 2회)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1일간, 1회)
수강 신청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s://www.kipf.re.kr/edu/)에서 신청



국가회계 전문교육 1차 국가회계이론과정(6. 23., 섬유센터 컨퍼런스홀)



재정통계 동향



- 2021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 2021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01 2021 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 일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2011년 재정통계 개편 이후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매년 작성해오고 있다.

1. 포괄범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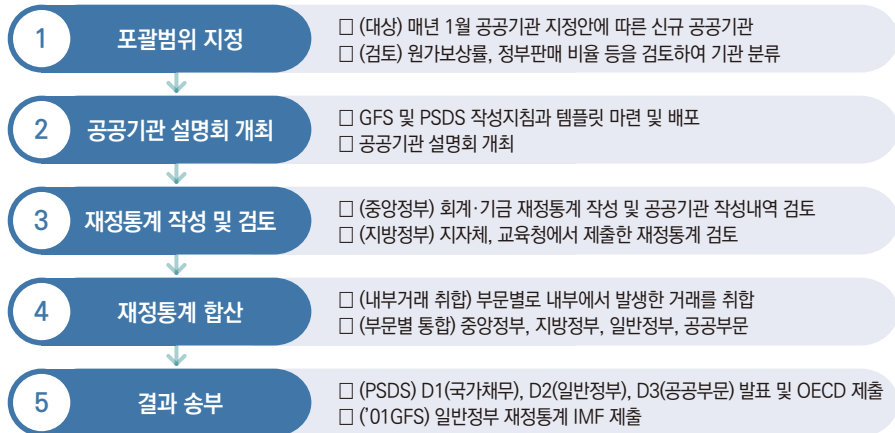
매년 신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원가보상률 및 정부판매 비율)를 수행하여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으로 구분한다. 2022년 신규 지정된 3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일반정부로 분류되었으며 지방정부 산하 신규 공사·공단인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 설명회 개최 및 재정통계 검토

매년 재정통계 작성대상이 확정되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도 작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설명회를 취소하고 유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재정통계 템플릿 작성방법을 설명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관별로 제출받은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 재정통계 검토를 수행한 후, 기관별 재정통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3. 재정통계 통합 및 결과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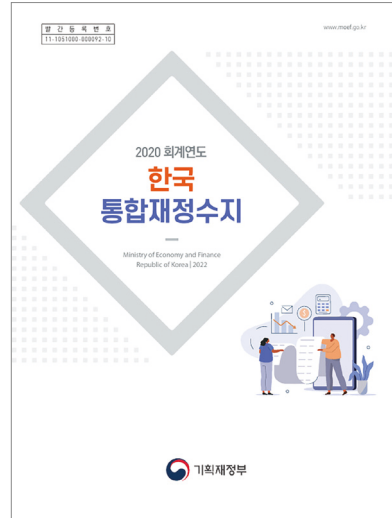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재정통계가 확정되면, 각 부문별로 재정통계를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고려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와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를 산출하고 연말에 관련 재정통계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02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발간

기획재정부는 재정규모 및 재정수지를 파악하여 국가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하고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발간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통해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와 GFSM 2001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결산 재정수지를 발표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월별·연도별 재정통계·추이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GFSM 1986 기준에 따른 중앙정부 결산 통합재정수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수지

2020회계연도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는 71.2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3.7\%$)로, 통합재정수입은 446.6조원(GDP 대비 23.1%), 통합재정지출은 517.8조원(GDP 대비 26.8%)을 기록하였다.

각 부문별 수지는 일반회계 $\Delta 32.7$ 조원, 기타특별회계 $\Delta 27.6$ 조원, 기업특별회계 $\Delta 1.6$ 조원, 기금 $\Delta 8.9$ 조원, 세입세출외 $\Delta 0.3$ 조원으로 구성된다.

표 1 2020회계연도 통합재정수지 총괄

(단위: 십억원, %)

구분	수입(A)	지출(B)	통합재정수지(A-B)
합계 (GDP 대비, %)	446,628 (23.1)	517,781 (26.8)	△71,153 (△3.7)
일반회계	288,023	320,760	△32,738
기타특별회계	16,822	44,425	△27,602
기업특별회계	2,740	4,318	△1,578
기금	138,967	147,879	△8,912
세입세출 외	75	399	△323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2. 4. 22.

2.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전년(443.9조원) 대비 0.6% 증가한 446.6조원(GDP 대비 23.1%)을 기록하였다. 국세수입은 재화및용역세 감소(7.6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7.9조원 감소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5.0조원 증가, 세외수입은 5.4조원 증가하였다.

표 2 전년 대비 수입원별 수입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국세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세외수입	자본수입	계
2020년(A)	285,546	74,583	83,565	2,934	446,628
2019년(B)	293,454	69,550	78,143	2,705	443,853
증감(A-B)	△7,908	5,033	5,421	229	2,775
(증감률)	(△2.7)	(7.2)	(6.9)	(8.5)	(0.6)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2. 4. 22.

3.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전년(455.8조원) 대비 13.6% 증가한 517.8조원(GDP 대비 26.8%)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3.1조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경상지출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다.

기금은 경상·자본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6.9조원 증가하였고, 기업특별회계는 경상지출 증가 등으로 0.6조원 증가하였다.

표 3 전년 대비 회계·기금별 지출 비교

(단위: 십억원, %)

구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기금	기업 특별회계	계
2020년(A)	320,760	44,425	399	147,879	4,318	517,781
2019년(B)	277,655	42,325	11,159	120,956	3,756	455,850
증감(A-B)	43,106	2,100	△10,760	26,924	563	61,932
(증감률)	(15.5)	(5.0)	(△96.4)	(22.3)	(15.0)	(13.6)

출처: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22. 4. 22.



03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발생주의 통계작성기준(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01: 이하 GFSM)에 따라 정부의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다양한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 4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내용을 기반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2020회계연도 기준의 재정수지는 52조원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총자산 및 부채는 각각 4,074조원과 812조원으로 순자산은 3,126조원이다. 참고로 GFS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이다.

GFS는 기초 저량에 기중 유량을 반영하여 기말 저량을 도출하는 체계이므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에 반영되어 재정정책 효과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1. GFS 재정지표

GFSM에 따라 산출되는 통계 보고서의 재정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재정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재정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유형	2020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운영수지	△5조원 (△0.2%)	총수익-총비용	정부운영의 지속가능성	정부운영표
재정수지 ¹⁾	△52조원 (△2.7%)	총수익-총지출	금융자원의 제공여부	정부운영표
순자산	3,126조원 (161.7%)	자산-부채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유형	2020년 규모 (GDP 대비)	산출식	의미	비고
순금융자산	814조원 (42.1%)	총금융자산-부채	유동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재정상태표
확정부채	945조원 (48.9%)	총부채-주식 및 기타지분과 파생상 품부채	부채의 건전성 (PSDS 기준)	재정상태표

주: 1) GFSM 2001에서는 순용자(Net lending)·순차입(Net borrowing)의 용어를 사용함

2.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

정부운영표상의 순운영수지 및 재정수지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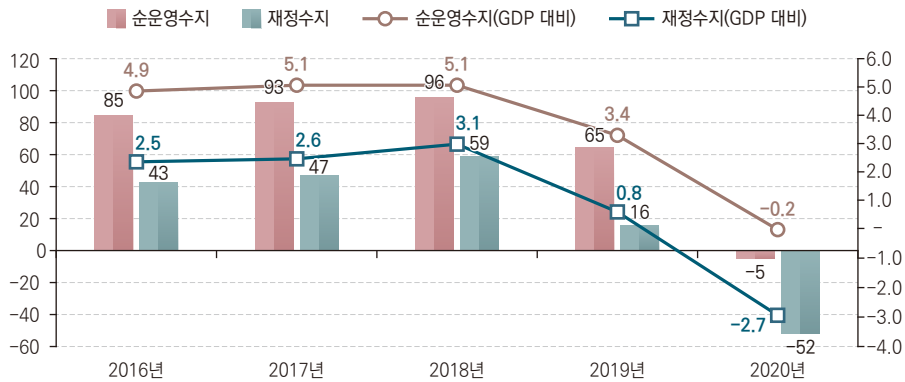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수익(A)	568	6.3	610	7.4	634	3.9	655	3.4	666	1.6
총지출(B=C+D)	525	2.0	563	7.2	575	2.2	639	11.2	718	12.4
총비용(C)	483	2.7	517	7.0	538	4.0	591	9.8	670	13.5
비금융자산의 순취득(D)	42	△5.8	46	8.5	37	△19.0	49	30.7	48	△1.7
순운영수지(A-C)	85	32.2	93	9.6	96	2.8	65	△32.4	△5	△107.1
재정수지(A-B)	43	119.8	47	10.8	59	23.9	16	△72.2	△52	△420.7

GFSM에 따라 산출되는 주요 재정수지 관련 지표의 추세를 살펴보면, 재정수지는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해오다 2019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총수익의 증가(사회보험료, 조세 등 전년 대비 1.6%)보다 총비용의 증가(사회급여, 보조 등 전년 대비 13.5%)에 따른 총지출의 증가(전년 대비 12.4%)가 더 크게 발생하여 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

그림 1 재정수지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GDP 대비 %)



3. 자산과 부채의 추세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단위: 조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순자산	2,617	5.0	2,747	5.0	2,842	3.5	3,024	6.4	3,126	3.4
자산	3,336	5.3	3,484	4.4	3,603	3.4	3,836	6.5	4,074	6.2
비금융자산	2,037	3.6	2,088	2.5	2,149	2.9	2,220	3.3	2,312	4.1
금융자산	1,299	8.0	1,396	7.5	1,454	4.2	1,616	11.1	1,762	9.0
부채	719	6.1	737	2.6	761	3.2	812	6.7	948	16.7

재정상태표상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도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부채의 GDP 대비 규모도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6.8%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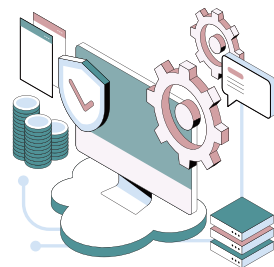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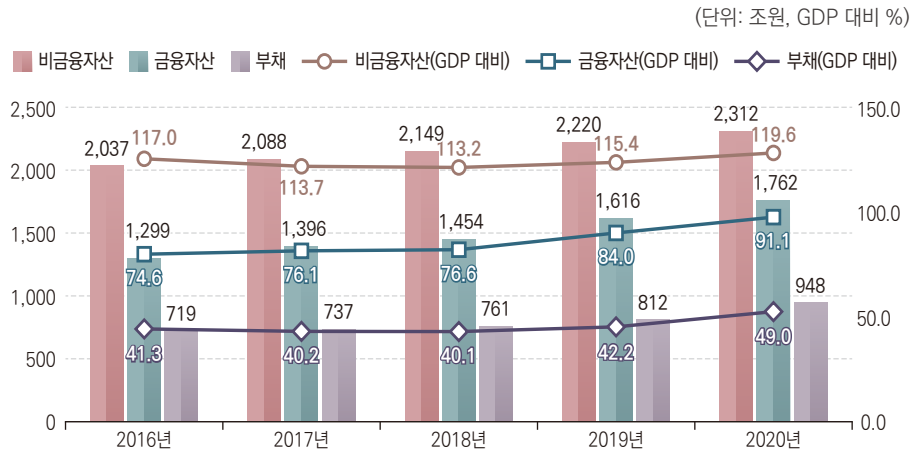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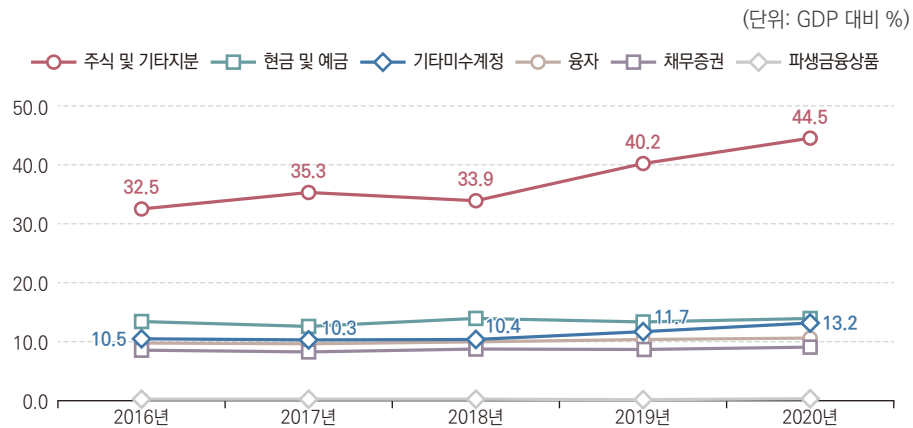


그림 2 자산과 부채의 5개년 추세



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전년 대비 7.2%p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주식및기타지분이 4.3%p, 기타미수계정이 1.4%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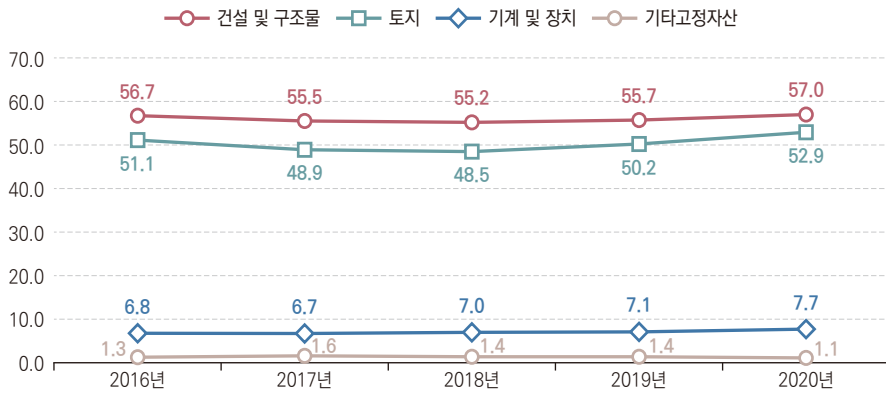
그림 3 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비금융자산의 GDP 대비 규모는 2020년에 전년 대비 4.2%p 증가하였는데 이는 구성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및구조물과 토지가 전년 대비 각각 1.3%p, 2.7%p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림 4 비금융자산 항목별 5개년 추세

(단위: GDP 대비 %)



4. 자산과 부채의 변동원인

2020년 자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산 중 비금융자산은 거래(취득-처분-고정자산소비)가 48조원, 토지 평가 등으로 인한 보유손익이 35조원, 누락자산 등재 등으로 인한 기타내용변화가 9조원 증가하여 총 92조원이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은 주로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주식및기타지분 취득 등의 거래로 81조원, 주식및기타지분 및 기타미수계정 등의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 63조원, 기타내용변화 3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46조원이 증가하였다.

2020년 부채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부채는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채발행 등의 거래로 133조원, 평가로 인한 보유손익으로 1조원, 기타내용변화로 1조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136조원이 증가하였다.

GFS 체계에 따르면, 정부 정책으로 인한 모든 경제적 거래가 재정통계 보고서에 집계되므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표 1 자산과 부채의 통합변동 명세

(단위: 조원)

구분	2020 기초	변동 내역(flow)			2020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836	128	98	12	4,074
비금융자산	2,220	48	35	9	2,312
금융자산	1,616	81	63	3	1,762
부채	812	133	1	1	948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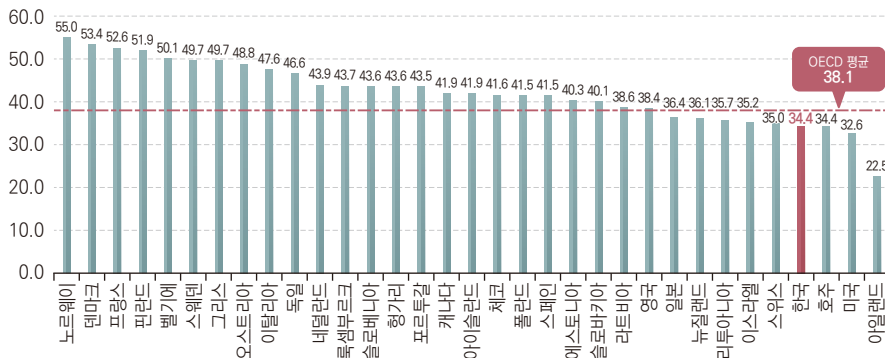
구분	2019 기초	변동 내역(flow)			2019년 기말
		거래	보유손익	기타내용변화	
자산	3,603	114	106	12	3,836
비금융자산	2,149	49	16	7	2,220
금융자산	1,454	66	90	5	1,616
부채	761	50	1	0	812

5. 국제 비교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2020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GDP 대비 34.4%로 OECD 평균인 38.1%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5 2020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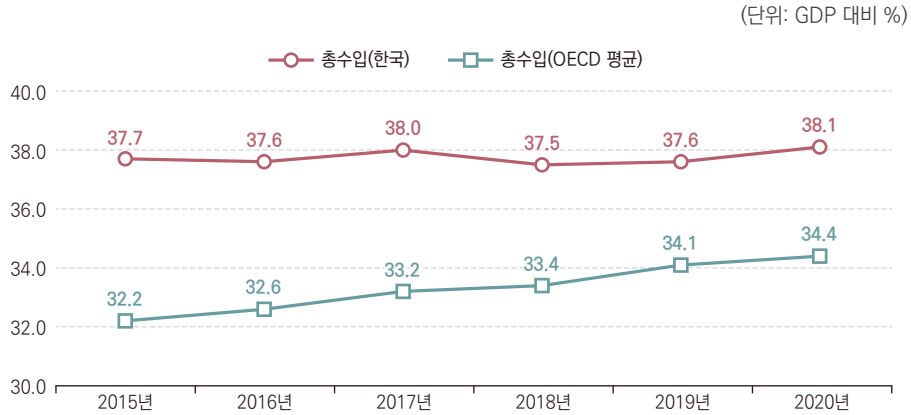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0(2021.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우리나라 GDP 대비 총수입은 2015년 32.2%에서 2020년 34.4%로 2.2%p 증가한 반면, OECD 평균은 2015년 37.7%에서 2020년 38.1%로 0.4%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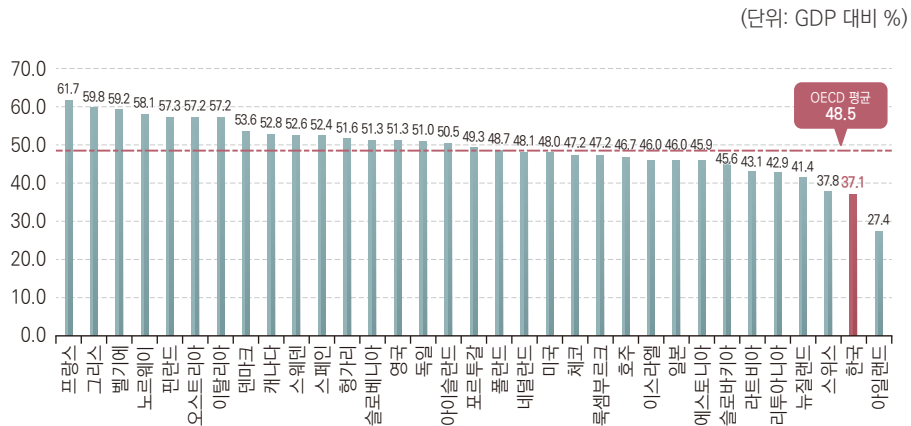
그림 6 2020년 일반정부 GDP 대비 총수입 추이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0(2021.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수입

2020년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OECD 평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 총지출은 GDP 대비 37.1%로 OECD 평균인 48.5%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림 7 2020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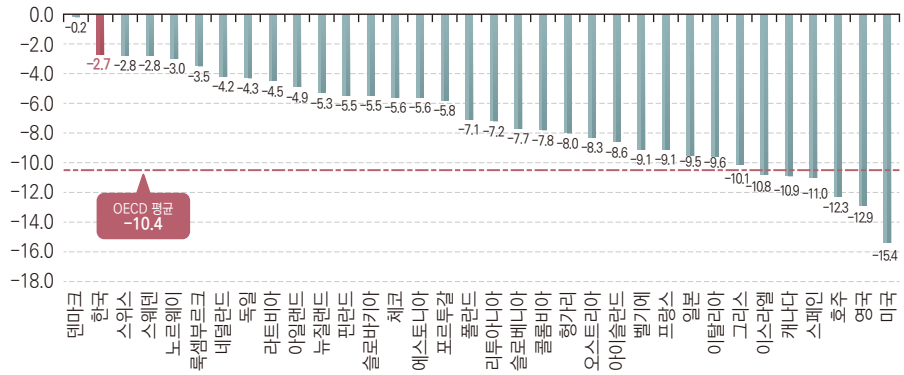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0(2021.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2020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DP 대비 Δ 2.7% 적자로 OECD 재정수지 평균인 Δ 10.4% 대비 양호한 편이다.

그림 8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출처: OECD.Stat Economic Outlook No 110(2021. 12.),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04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정통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계 산출방식 및 분석결과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를 발간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 개념과 작성대상 정부 범위, 통계 산출과정 등 산출방식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 재정통계 산출결과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재정통계 주요 지표의 추이 변화와 국제비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과정과 이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였으며, 최근 GFSM 2014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변화를 담고 있어 재정통계 활용과 관련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쉽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표 1 『2022 알기 쉬운 재정통계』 목차

PART	목차
1	재정통계 살펴보기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부록	2020 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05 2021회계연도 공기업 결산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운영법」 제12조에 따라 최근 5년간의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¹⁾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전력을 포함한 37개 공기업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기업 재무성과

2021회계연도 37개 전체 공기업의 매출액(영업수익)은 148.4조원으로 전년 대비 14.9조원(11.2%↑)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0.8조원으로 전년 대비 6.1조원(88.9%↓)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익 역시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160.5%↓) 감소하였다. 기타포괄손익은 0.5조원으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2.0조원↓, 79.0%↓)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기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재평가 기저효과 영향이다.

1) 알리오(All Public Information In-One, ALIO):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2006년에 구축한 시스템

최근 3년 동안 공기업²⁾ 손익은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영업수익(매출)	1,451,620	1,334,489	1,483,794
영업손익	72,306	69,081	7,685
당기순손익	13,058	△6,539	△17,035
총포괄손익	11,409	18,335	△11,811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2021회계연도 당기순손익 상위 및 하위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당기순손익 상위 공기업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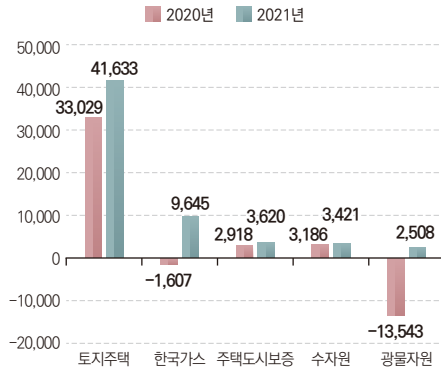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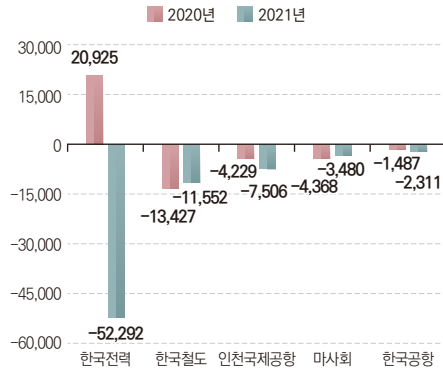


그림 2 당기순손익 하위 공기업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9개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전력 기술,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공사의 자회사(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주식회사 에스알)는 각각 모회사가 연결하여 재무성과를 보고하고 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이하 동일)

2. 재무성과의 주요 변동원인

2021회계연도 공기업의 손익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다. 2021회계연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의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 물량 및 단가 상승,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양주택 매출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은 전년 대비 14.9조원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의 당기순손실은 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조원 감소하였다. 이는 국제 연료가 상승 등으로 한국석유공사의 당기순손실이 개선되었고 한국가스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적자로 전환되었고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당기순손실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표 1 주요 공기업 당기순이익 변동원인

(단위: 억원)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20	2021	증감	
	한국석유공사	△24,392	△460	23,932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스 판매단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장기유가전망 상승에 따른 손상차손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크게 개선됨
증가	한국광물자원공사	△13,543	2,508	16,051	암바토비 등 관계회사 지분법평가이익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이자 비용 감소 및 전기 불레오 사업 손상 기저효과 등으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한국가스공사	△1,607	9,645	11,25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신규공급, 경기회복으로 인한 발전량 증가 등 천연가스 판매량 증가 및 단가 상승, 유가 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

표1 의 계속

구분	기관	당기순이익			내역
		2020	2021	증감	
	한국 전력공사	20,925	△52,292	△73,217	전력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국제 연료가 상승,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 등으로 연료비 및 구입전력비가 크게 증가하여 영업손실 기록 및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감소	인천국제 공항공사	△4,229	△7,506	△3,277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운항 및 여객수요가 감소하였으며 입주업체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
	인천항만 공사	891	△237	△1,128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및 항만시설사용료 매출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으나, 전기 복인천복합단지 매각이익 기저효과로 당기순손실 기록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022.

3. 공기업 재무상태

2021회계연도 공기업 자산은 658.5조원으로 전년 대비 42.0조원 증가(6.8%)하였고, 부채는 434.3조원으로 전년 대비 36.2조원 증가(9.1%)하였다. 공기업 자산은 주로 전력, 도로 등 에너지·운송부문 시설과 임대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부문의 전력설비 증가 및 부동산 부문의 임대자산 증가, 교통수송 부문의 자산재평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하였다. 부채는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종업원급여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및 사채 발행 등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 공기업 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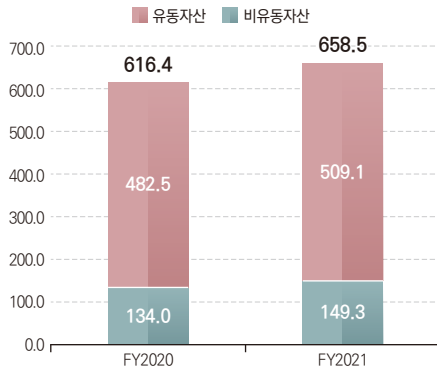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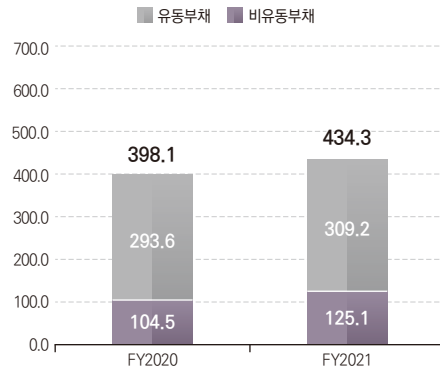


그림 4 공기업 부채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공기업 자산 구성은 발전 설비 등 유형자산(38.9%)과 임대주택 등 투자부동산(18.3%) 분양토지 등 재고자산(14.2%) 등이며, 부채는 금융부채(63.1%)와 장단기매입채무(12.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공기업 자산 구성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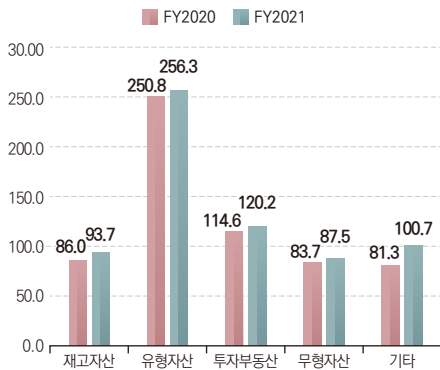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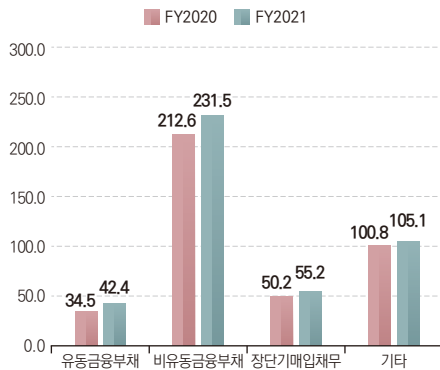


그림 6 공기업 부채 구성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공기업의 전체 자산과 부채는 일부 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투자부동산 등이 전체 공기업 자산의 62.7%를 차지한다.

그림 7 공기업 기관별 자산 구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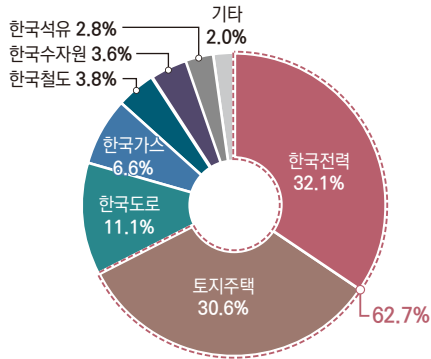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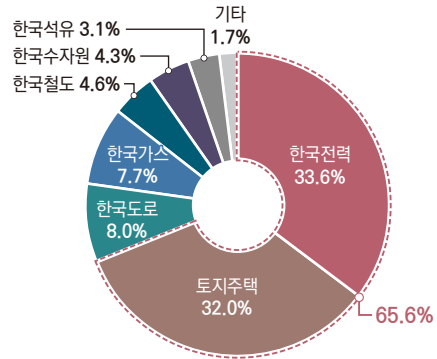


그림 8 공기업 기관별 부채 구성

(단위: %)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4. 재무상태의 주요 변동원인

가. 자산·부채 주요 증감

2021회계연도 공기업의 자산은 전년 대비 42.0조원 증가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 증가로 임대주택 증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2021회계연도 공기업의 부채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채권 발행,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투자 및 원전해체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전년 대비 36.2조원 증가하였다.

표 2 주요 공기업 자산 변동원인

(단위: 조원)

구분	기관	자산			내역
		2020	2021	증감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185.3	201.7	16.4	투자 증가로 분양토지 재고자산 증가(4조 822억원) 및 건설 및 매입 임대자산(투자부동산) 증가(4조 7,863억원), 현금성자산 및 유동금융자산 등 기타자산 증가(7조 4,951억원)
	한국전력공사	203.1	211.1	8.0	전력설비건설 및 보강 등으로 유형자산 증가(4조 4,104억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증가(1조 3,009억원), 원재료 등 재고자산 증가(8,653억원)
	한국가스공사	35.9	43.7	7.8	동절기 판매단가 상승으로 매출채권 증가(2조 5,621억원), LNG 재고물량 증가 및 구매단가 상승으로 재고자산 증가(2조 1,925억원),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료비 미수금 증가(1조 7,193억원)
	광해광업공단	-	5.0	5.0	신규 설립(광물자원공사 3조 4,504억원, 광해관리공단 1조 5,258억원) 후 투자주식(암바토비, 꼬브레파나마 등) 증가(599억원)
감소	한국광물자원공사	3.0	-	△3.0	산토도밍고 지분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 발생(1,120억원) 등 자산 증가 후 해산으로 자산 감소(3조 4,504억원)
	한국마사회	2.2	1.9	△0.3	영업중단 및 입장규모 제한에 따른 경매수익금 감소로 운용자금 감소(2,761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	0.7	0.5	△0.2	코로나19 영향 운영자금 충당을 위한 장·단기 금융자산 감소(1,595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기관 제출 결산보고자료」, 2022.



나. 차입금 및 사채

2021회계연도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전년 대비 26.9조원 증가한 272.6조원으로 부채의 많은 부분(62.8%)을 차지한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41.4%로 민간 30.4%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데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고 민간에 비해 자본조달이 용이한 공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부문의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는 1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1조원 증가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설비 투자 등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및 사채가 10.8조원 증가하였고, 한국가스공사의 운전자금 증가에 따른 차입금 및 사채가 4.0조원 증가하였다. 에너지 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 부문 공기업의 차입금 및 사채는 75.3조원으로 전년 대비 6.4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용자금 증가 및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사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한다.

교통·수송부문의 차입금 및 사채는 63.0조원으로 전년 대비 4.4조원 증가하였는데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건설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사채 발행 2.1조원 증가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4단계 사업비 집행 등을 위한 사채 1.6조원 증가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그림 9 공기업 차입금 및 사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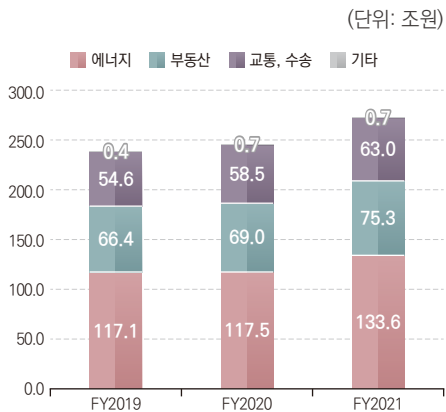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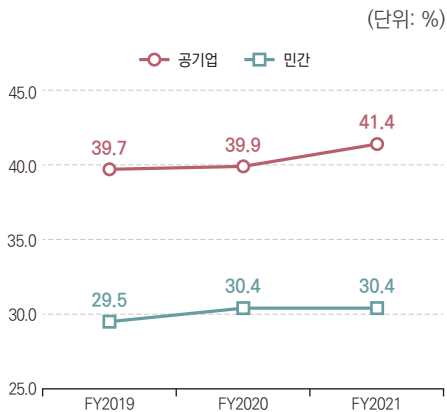


그림 10 차입금의존도³⁾ 추이 민간 비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3) 차입금 의존도 = (차입금+사채)/총자본, 2021회계연도 민간 차입금의존도는 2020년 수치 적용

5. 정부출자금 및 배당금

2021회계연도 공기업에 대한 정부출자금은 117.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출자금의 59.3%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출자금으로 고속도로 사업 및 임대주택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 공기업 자본금 및 정부출자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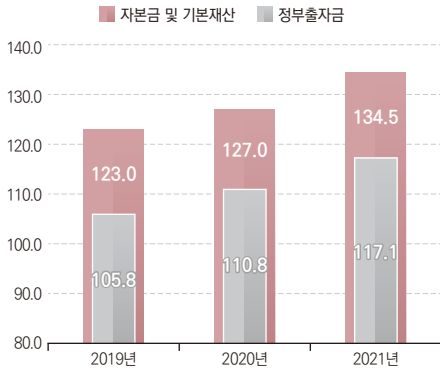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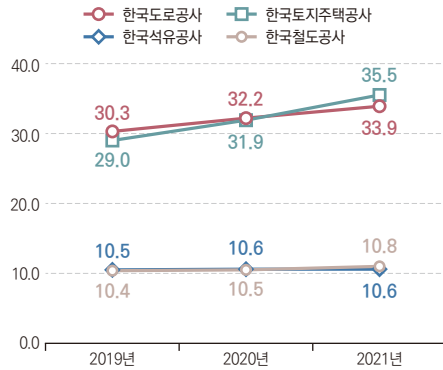


그림 12 정부출자금 주요 기관

(단위: 조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2021회계연도 배당금은 전년 대비 25.0% 감소한 1.2조원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전년 대비 1개 감소한 8개 기관이 배당을 실시하였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전환, 인천항만공사의 배당 감소 등으로 배당총액은 전년 대비 4,027억원 감소하였다.

그림 13 공기업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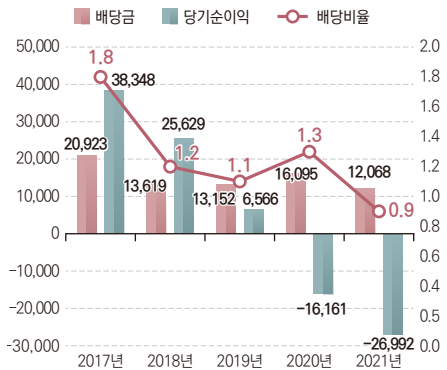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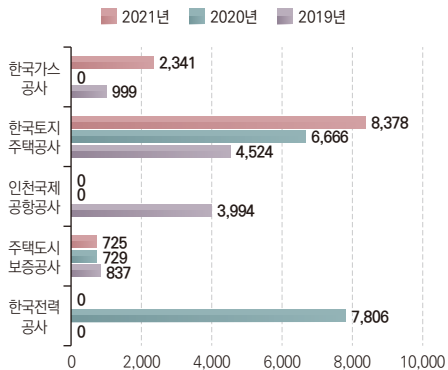


그림 14 주요 기관별 배당금 추이

(단위: 억원)



출처: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 검색일자: 2022. 6. 30.

6.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

전체 공기업의 2021회계연도 수익성, 생산성, 안정성 모두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공기업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고유가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의 재료비가 증가하여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4.7%p 크게 하락하였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에도 고유가 등으로 인해 해외사업 손상차손 감소, 투자기업의 지분법이익 증가 등으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당기순손실이 개선되었음에도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이 적자 전환하며 전년 대비 0.7%p 하락하였다.

대표적 안정성지표인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11.4%p 상승하였는데, 정부출자금 증가 등으로 자본이 증가하였으나 차입금 및 사채 증가로 부채가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자보상비율은 전년 대비 128.7%p 감소한 16.8%를 기록하였다.

부가가치액은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율은 전년 대비 3.8%p 감소한 29.1%를 기록하였다.

최근 3년 동안 공기업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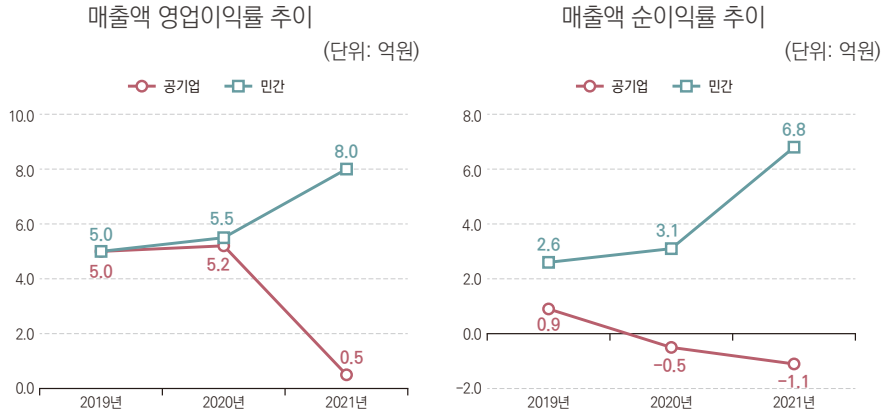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19년	2020년(a)	2021년(b)	증감(b-a)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100)	5.0	5.2	0.5	△4.7
	매출액 순이익률 (당기순손익/매출액×100)	0.9	△0.5	△1.1	△0.7
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	182.7	182.3	193.7	11.4
	이자보상비율 (영업이익/이자비용×100)	139.7	145.6	16.8	△128.7
생산성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매출액×100)	30.9	32.9	29.1	△3.8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평균)×100)	24.6	21.9	23.3	1.4
	경제활성화지수 (부가가치액/GDP×100)	2.3	2.3	2.2	△0.1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 민간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공기업은 특

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기록 및 당기순손실 전환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민간과 격차가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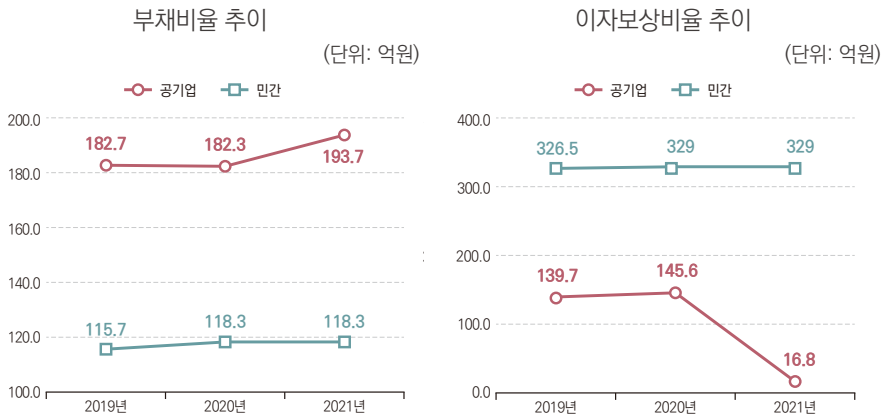
그림 15 공기업 수익성 지표 추이



출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사업연도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결산실적」, 보도자료, 2022. 4. 4. 중 연결기준 주요 재무정보 재구성

2021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은 크게 하락하여 공기업의 안정성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기업의 경우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자본 마련을 회사채 발행이나 차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상 민간에 비하여 부채비율은 높고 이자보상비율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공기업 안정성 지표 추이



주: 2021회계연도 민간 부채비율은 2020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2021. 11.

주: 2021회계연도 민간 이자보상비율은 2020회계연도 수치 적용

출처: 한국은행, 「2020년 기업경영분석」, 2021. 11.



센터 동향



-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1차 월례회의
-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최종보고회
- 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사업운영
- 해외위탁연구 진행: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2022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정부회계분과 제1차 월례회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효과적인 재정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학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동연구체계 구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전문가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중 시의성 및 정책성이 높은 분과를 선정하여 각 분과별로 세부과제를 운영하는데, 2022년에는 거시 노동, 재정법·제도, 복지, 환경·에너지, 정부회계 총 6개의 분과에서 총 30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회계 분과에서는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성 제고에 관한 5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진은 김봉환 교수(서울대),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 최연식 교수(경희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김진욱 교수(건국대)로 구성되었다.

구분	연구주제	연구자
1	재정위험관리보고서 도입방안	김봉환(서울대)
2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채무지표 재설계	이정희(서울시립대)
3	정부회계 우발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연식(경희대)
4	정부의 복지부문 사업보고서 도입에 대한 검토	조형태(홍익대)
5	국가회계의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차이: 부처별 특성을 중심으로	김진욱(건국대)

제1차 월례회의는 2022년 6월 17일에 서울지방조달청 10층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채무지표 재설계」라는 주제로 이정희 교수(서울시립대)가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손종필 박사(정의당 정책연구위원)와 석조은 강사(중앙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주요 발표내용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재정통계를 산출하기로 하고 그 결과로 2014년 이래 회계연도에 대한 공식적인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산출·공표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통계 개편의 노력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노력들의 이론적 및 정책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정통계의 타당성이 부족하며, 국가부채 및 공공부채의 과소추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통계치들 간의 큰 편차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셋째, 재정관리제도들과의 낮은 연계성으로 인해 효율적인 부채관리를 위한 활용성 측면에서 미흡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재정환경 및 재정위험을 반영하지 못하여 적절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부채 관리방안의 개선 방향으로 첫째, 국가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연금 총당부채 등 누락된 제도단위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시키고, 내부거래 제거 전후의 개별·통합단위의 부채를 동시에 공시하며, 우발부채 및 잠재부채 고려 등 부채의 포괄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목적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한 부채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학, 재정학 이론에 기반한 재정통계 시스템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이고 타당성 있는 재정통계지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토론내용

손종필 국민연금 총당부채를 정부부채로 편입하는 문제는 경제적·정치적 책임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민연금 재정수지에 대한 건전화 방안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인 BTL 사업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정부의 지급의무가 존재하므로 이를 국가회계적 차원에서 부채로 인식하고 추정치를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석조은 현행 국가채무 설정방식은 장기적 관점의 국가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조치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데 제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 재정통계지표가 보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연기금의 지속가능성 논란도 이와 같은 국가채무의 연장선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선제대응과 즉각적인 관리 노력이 적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국가채무지표 설계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최종보고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의 발전을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위탁과제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4월 15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진인 임채창 교수(안동대)와 엄기중 교수(순천대)가 연구내용에 대해 최종보고하였으며, 박성환 교수(한밭대)와 변영선 상무(삼일회계법인)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성환 교수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공익법인 전체를 아우르는 측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사례 조사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및 해석의 어려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실태 및 실무 적용 사례 등을 보강하면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하였다.

변영선 상무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지속적으로 연구·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마련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센터는 위탁과제의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익법인회계기준 해외사례 비교 분석」 최종보고회(4. 15.)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사업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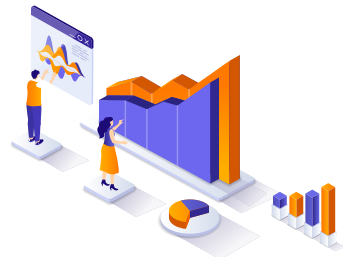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2022년 하반기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홈페이지 구축 및 회계교육 교재 개발을 진행 중이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홈페이지 구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수강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게시판을 통한 질의 및 응답이 가능하여 수강생과 교육 제공자 간의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홈페이지 구축 용역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에이치디모션 외부 위탁 용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교재 개발」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2년 하반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운영을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강의용 교육교재 개발을 외부위탁연구로 진행 중이다. 전규안(숭실대), 한승엽(홍익대), 선우희연(세종대) 교수로 연구진이 구성되어 8월 교재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교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무제표 전반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회계원리 수준의 이론에 업무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회계 오류나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 등을 추가하여 담당자의 실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환경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회계교육과 교재 집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기관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이지훈 회계사(진일회계법인)와 교재 개발 연구진을 모시고 2022년 6월 29일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담당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개발과 회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 회계교육교재 개발 위탁과제 전문가간담회(6. 29.)



해외위탁연구 진행: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우발부채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위탁 연구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2022년 5월 ~ 9월(5개월))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현금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발부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IMF와 영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우발부채의 현실화를 재정위험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였다. 2021년에 수행하였던 해외위탁연구 결과 영국은 재정위험보고서에서 식별된 우발부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구체적인 제도, 조직,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단계별 개선 과정을 거쳐 가장 고도화된 우발부채 관리체계를 정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우발부채 규모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급보증을 중심으로 우발부채 관리의 모범사례인 영국의 우발부채 관리체계에서 지급보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우발부채 인식 방안을 제안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영국 우발부채 관리체계 효과분석」 연구는 우발부채 관리체계의 소개 및 실질적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영국 Kalar Consulting의 연구진이 9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미나



-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결과보고

‘2022년 한국정부회계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결과보고



가. 개요

- 주 제: 재정상태표 기반의 국가재정 관리 및 지자체의 발생주의 지표 활용
- 일 시: 2022. 6. 24.(금) 09:00~12:10
- 장 소: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 주 최: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주 관: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주제발표 및 토론〉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사 회] 강인재 원장(재정성과연구원)

[발표1]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윤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주요국의 재정상태표 접근법을 활용한 재정관리 동향
(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국가별 총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 론] 이상열 교수(한양대), 박상연 교수(배재대), 김철희 본부장(한국공인회계사회)

나. 발표 및 토론 요약

• 주요 발표 내용

발표1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GDP 대비 252%로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하며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부 부채 증가율은 낮다. 민간부채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증은 경제위기 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GFSM에서는 민간부채의 정부보증에 대한 기대 이득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관련 부채의 공공부문 보증 현황을 파악하여 정부가 우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의 규모를 분석하는 동시에 민간 주택 관련 부채의 공공부문 보증에 대한 재정위험을 추정하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보증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의 제1요인은 주택 관련 보증의 급격한 성장 때문이다. 국내 보증 잔액 점유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인 주요 3개 기관이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최근 보증수요의 증가에 따른 보증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 보증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형태로 공시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020년 말 보증채무의 규모는 12.5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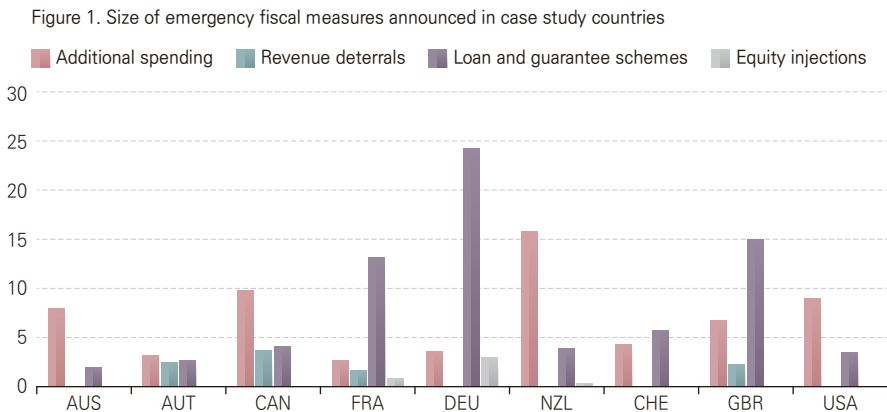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윤영훈 초빙연구위원 발표(6. 24.)

공공부문 보증제도에서의 재정위험은 해당 예상 손실 및 비용보다 실제 비용이 더 커져 정부가 수립한 재정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 즉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위험 추정을 통해 현행 보증잔액 및 보증충당부채 설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추후에 연구자는 경제위기 시 민간의 주택 관련 대출을 보증하는 공공부문 보증기관의 재정위험에 미치는 영향 추정, 기타 금리 등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민감도 분석, 공공부문 보증 관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2 주요국의 재정상태표 접근법을 활용한 재정관리 동향
(한소영 국가회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상태표 접근법이란, 재정상태표에 기반한 재정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를 중심으로 정책설계 및 비용추정, 위험관리, 예산 책정 및 보고 등에 접근하는 방식이다. 재정상태표 기반한 정책은 지급보증, 융자, 출자 등을 말하며, 즉각적인 재정 적자로 나타나지 않고, 정부의 자산부채로 표시 관리되며, 재정적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난다. 최근 재정상태표 기반한 정책을 활용하는 빈도와 그 규모가 매우 커지고 있어 정부 재정상태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예로 코로나19 대응 시 OECD 주요 국가에서 추가적인 정부 지출 대신 융자, 보증, 출자와 같은 재정상태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활용이 증가함을 들 수 있다.

그림 1 OECD 국가, 코로나19 대응 시 재정상태표 기반정책의 활용 증가(융자, 보증, 출자)



출처: Moretti, Delphine, Thomas Braendle, and Alexandre Leroy, "Balance sheet-based policies in COVID-19 fiscal packages: How to improve transparency and risk analysis?," *OECD Journal on Budgeting*, 2021(2), 2021, p. 4, Figure 1.

공공재정관리를 위해 재정상태표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정부의 핵심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증대할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② 작은 개선사항으로 상당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③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는 등 위험 관리에 좋으며, ④ 현재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투입 대비 높은 가치로 제공하며, ⑤ 지속가능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재정상태표 정책을 잘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 측면에서 많은 정비를 하였다. 특히, 대출 및 보증 예산 측정을 위한 신용개혁법을 도입하였다. 영국의 경우 재정상태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담 팀을 구성하고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영국의 결산보고서인 공공부문통합결산서를 통해 금액적 효과 및 관리체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의 포트폴리오 구분, 재정상태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재무부의 재정 및 공공지출 관련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 재정상태표 관리와 자산부채의 기능별 분류, 정부 투자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 투자 성과에 대한 분석과 생활표준 체계를 이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재정상태표와 복지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상태표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부 재정상태표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공공재정관리에 많은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한소영 팀장 발표(6.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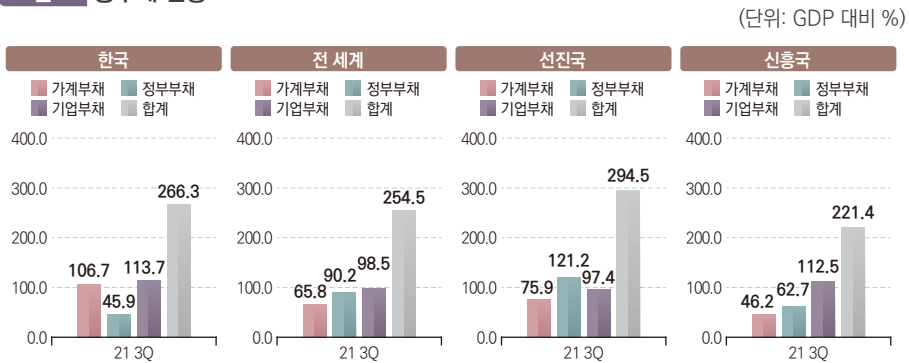
발표3

발생주의 재정정보를 활용한 공공부문의 가계부채 보증현황 및 관리방안 연구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재정관리에 있어 우리나라는 정부부채의 수준은 낮은 반면,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가계, 기업, 정부부채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눈 부문별 부채의 국제비교, 유동성 위험(만기)과 금융자산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채부담에 따른 이자비용 및 민간부채와 정부부채 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2021년 3분기 한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266.3%로 선진국(294.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신흥국(221.4%)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2 총부채 현황



출처: BIS(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022. 4. 30. 조회 기준

총부채 변화를 종합하면 한국의 총부채 증가(GDP 대비 77.3%p)는 선진국(55.2%p) 대비 높고 신흥국(105.5%p) 대비 낮은 편이다. 한국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GDP 대비 35.7%p) 및 규모(GDP 대비 106.7%)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주의가 필요하며, 가계부채 중 기타대출 규모가 매우 큰 편이고 증가폭이 커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부문별 실질적인 부담을 파악하기 위한 이자비용 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부분에서 총부채는 대부분 증가한 반면, 이자비용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부채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부부채 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가계와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민간부문의 부실이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박운진 팀장 발표(6. 24.)

• 주요 토론 내용

토론 이상열 교수, 한양대

앞서 발표한 연구주제들이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위험관리 특히 투명한 부채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정보생산자의 관점에서 국가회계라는 정교한 정보를 어떻게 잘 제공할 것인지, 국가회계의 정보이용자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표 1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보증충당부채로 기록하는 것과 주식사항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주제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을 국가회계에도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잘 받아들이기를 제안한다.

발표 2 정부의 출자금과 관련하여 공기업과 정부를 포괄하는 연결재무제표작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 부채들의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니 향후 연구주제로 이를 제안한다.

발표 3 투명한 부채 공시의 필요성을 가계와 기업과 함께 분석해본 시의적절한 주제였다. 전 세계적으로 부채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부채는 낮으나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이 높다는 결론과 관련하여 기업부문을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해보면 좀 더 의미 있는 연구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 박상연 교수, 배재대

발표 1 공시 구분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증과 관련한 기존의 공시제도의 개선점을 연구에서 보여주길 제안한다.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발표 2 정부보증 측면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 재정상태표에 기반한 재정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국내 재정상태표의 현황만을 보여줬을 뿐이어서 관리 측면에 대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직접적인 시사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강조되길 바란다.

발표 3 정부 부채수준은 낮지만 향후 부채비용 증가 측면에서 앞으로 민간부채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정부회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정책수립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간경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토론 김철희 본부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작성되는 국가결산보고서가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국가재정관리에 잘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재정위험을 측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재정위험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려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분석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분석과 비슷하게 예기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가 잘 갖춰져야 한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정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체계화시킨다면 꾸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 세션 토론(6. 24.)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지사항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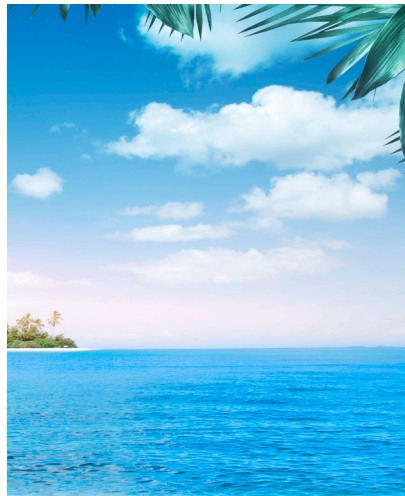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